

정부, 北에 “금강산서
편리한 시기 실무회담”

통일부는 28일 금강산의 남북 시설에 대해 철거를 요구한 북한에 편리한 시기 금강산에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이 담긴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현대아산은 오늘 월요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아산은 당국 대표단과 동행하여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담 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는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북한은 통일부와 현대아산 측에 문서 교환 형식으로 금강산 관광 시설의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온 바 있다.

정부가 이날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것은 이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북한의 시설 철거 요구에 대한 수용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하는 ‘역제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실무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제안하면서, 추후 남북 간 실무회담이 개최된다면, 남측 대표단이 금강산 지구의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한 후 북측과의 구체적인 협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팀’ 민주당도 흔들

‘총선 불출마’ 이철희, 이해찬 책임론 제기

정성호·김해영·조웅천 등 자성 목소리도

총선을 앞두고 ‘원팀’을 강조하던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나온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이해찬 당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26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조국 정국 이후 당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무기력해진 책임의 상당 부분이 이해찬 당대표에게 있다”고 이 대표를 지적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던 이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국에 이 한창이던 지난 8월 의원총회 당시만 하더라도 “내부 균열이 생기면 망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단속에 나서기도 했던 만큼 이번 작심 발언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조 전 장관의 임명 전후로 당내

동요 분위기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됐다.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중진의원들이 거둬 우려했던 목소리를 냈다. 일찌감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임명을 반대했고, 청문회장에서 조 전 장관을 공개 비판한 금대섭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사활을 건 공수처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3선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조국은 갔다. 후안무치한 인간들 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며 “책임은 통감하는 자가 단 일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25일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다. 조웅천 의원은 “조국 사태”로 인해 많은 의원이 지옥을 맛봤다”고 말했다고, 김해영

의원은 “삼푸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푹 떨어진다. 우리가 지금 딱 그런 상태”라며 우회적으로 당내 분위기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최고위원인 김 의원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자성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내부 민심을 다잡는 동시에 ‘단일대오’에 힘을 실기 위해 총선제에 더욱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내년 총선 전략과 홍보 등을 총괄할 총선거확단을 설치했다. 최고위 이후에는 불출마 선언을 한 이철희·표창원 의원을 만나 주로 격려의 이야기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달 2일 이례적으로 세종시 자택에서 만찬을 열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이번 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원내대표 만난 문희상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회동을 갖기 위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준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후안무치...200명이면 충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 확대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민 원성의 대상인 국회의원을 30명이나 더 늘리자는 정의도 아닌 ‘부정의’ 정당의 주장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한국당에 대해서도 “한국당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수를 더 줄이면 아합해 줄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할지는 모르나 패스트트랙 수사와 맞바꾸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의를 배신하면 아당도 버림받는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립무원’ 손학규 “제3지대 통합” 반격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 권좌로 분류되던 문병호 최고위원마저 당을 떠나면서 고립무원에 놓였지만, 손 대표는 28일 “제3지대를 열어 통합개혁정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대표직 사수 의지를 드러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7일) 문병호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탈당한 것을 언급한 뒤 “저에게 항언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이 가해지고 당에 대한 저주도 견디기 힘들 정도”라면서도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할 일이 있다. 저에게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최근 퇴진과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의 징계로 당권파가 최고위원회의의 다수를 장악해 당 최고 의결기구인 정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봤다. 그러나 문 최고위원의 탈당으로 손 대표의 이같은 시도는 좌절됐다.

손 대표는 인재 영입을 통해 제3지대에서 정치세력 규합에 앞장서 자신이 처한 정치적 난관을 타개하겠다고 밝혔다. 제3지대 내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 흔들리는 자신의 리더십을 세우겠다는 생각으로 읽힌다.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함께 자리한 당권파 인사들은 당권파가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당권과 내 호남계 인사들도 손 대표 체제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고, 문 최고위원마저 탈당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

계 의원들과도 1mm의 오차도 없이 긴밀히 협력하고 대화하고 있다. 당권파 의원들은 당의 회복을 위해 멸사봉공하겠다”며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혁명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언론인들도 감쪽 놀랄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다시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해 최고위원회를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는 다시 호남계 의원에게 손을 뻗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이를 통해 다시 최고위가 정상화되면 대안당(가칭) 인사들을 포함한 인사들의 영입 및 총선거확단 설립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손 대표의 이같은 행보가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리더십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퇴진파 측에서는 결국 손 대표가 말한 인재영입은 결국 대안당과 함께하는 ‘호남신당’에 그칠 것이라 지적이 나온다. 설사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인사들을 일부 영입하거나, 다른 정치권 바깥 인사를 영입한다 하더라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정치권에서 뚜렷한 대선 주자 없이 세력을 규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당권파 측에서는 호남계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퇴진파 측에서는 호남계와 당권파는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가짜뉴스